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 오후 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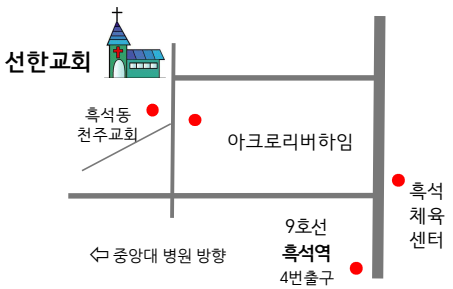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 셉 회	오후 2:00
		바 울 회	오후 2:00
파 워 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루 디 아 회	오후 1:00
		마 리 아 회	오후 2:00
청 년 부	오후 1: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비 전 워 십	오후 2:00	에 스 더 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교육목사	정 용 준	
	협동목사	홍 진 표	
	교육전도사	윤 영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 희 태, 유 신 웅		
	조 윤 익		
장 로	편 도 선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영 근, 윤 호 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Good Church
	조 계 승, 이 태 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 천 사 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벧후 2:9)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한교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3부 오후 1:00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양과경배	20장 (통일찬송가 41장)	
교 독 문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찬양과경배	528장 (통일찬송가 318장)	
기 도	윤호중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경봉독	베드로후서 2장 4~11절	사 42:8
설 교	**불의한 자와 경건한 자의 심판** (임춘배 목사)	**문화를 분별하고 기도하는 청년**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베이스 파트	다 함께
환영 및 광고	인도자	인도자
파송의노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도의교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사회: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다 함께
성경봉독	이사야 31장 1~9절
설 교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임춘배 목사)
찬 양	482장(통일찬송가 49장)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임춘배 목사

너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시 114편 1~8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오늘 점심 봉사는 마리아회입니다.
4) 주차 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새 생 명 축 제

1. 날짜: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축제예배(2부)
2. 초청할 분들을 기도하며 정하고 명단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노방전도 일정
① 토요전도: 11월 16일(토) 오후 1시
② 금요전도: 11월 1일, 8일, 15일 오후 6시 30분~7시 30분

3. 월삭새벽기도회

월삭새벽예배: 11월 1일(금) 오전 5시 30분 (주관: 분당/안산/상도)

총동원금요기도회

총동원금요기도회: 11월 1일(금) 오후 8시 30분 (주관: 드보라/요셉/마리아)

4. 성 탄 절 칸 타 타

성탄절 칸타타 연습이 진행중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은 성도님들은 매주일 2부 예배 후 지하 2층 연습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김현석 집사

5. 제 직 회

11월 3일(주일) 2부 예배 후에 제직회가 있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불의한 세상 속에서 순전한 신앙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가정예배 시선을 바꾸면 보입니다

찬송 : '아, 내 맘속에' 411장(통473)
본문 : 출애굽기 14장 10~14절
말씀 : 크리스천치유상담연구소 정태기 교수님은 전남 신안군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섬에는 아름다운 백사장이 있는데 태풍만 불면 해변에 도자기와 신기한 물건들이 파도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 중 이를 주워서 집으로 갖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밀려온 물건은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으로 생각해서 집으로 갖고 가면 세 가지 큰 재앙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재앙은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간 사람은 죽는다는 것과 그 집안에 죽을병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집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그릇을 갖고 집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았고, 그 그릇을 본 사람은 그릇을 깨뜨려 모래사장 안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목포에서 중학교 과정을 유학해 이 미신을 들어본 적이 없는 한 학생이 태풍이 분 다음 날 모래사장을 걷다가 그릇을 하나 주워서 집으로 갖고 왔습니다. 마침 집에 필요했던 개 밥그릇으로 쓰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여겨 3년 동안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인 이종사촌이 그 섬에 휴가를 왔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개 밥그릇을 달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기에 그릇을 건네줬고, 이종사촌은 그 그릇을 잘 닦아서 목포시청 총무과장에게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감정한 결과 그 개 밥그릇의 감정가는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당시 강남의 가장 비싼 아파트가 1500만 원 정도 하던 때였습니다.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던 하찮은 그릇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야 할 값진 도자기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도자기를 깨끗이 닦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자기의 진짜 가치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면 값비싼 도자기가 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개 밥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로 감격하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의 말과 후회,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선이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탄식할 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합니다.(13~14절)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또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불의한 자와 경건한 자의 심판** (벧후 2:4~11)

서 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 론
1.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
(1)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3절).
(2) 세가지 증거: ①범죄한 천사들 ②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③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6절)
(3)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9절).
(4)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다(10절).

2. 교훈
(1)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가?
(2) 심판 날에 경건한 자로 설 것인가? 불의한 자로 설 것인가?
(3) 경건한 자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 론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윤호중 장로	조계승 장로
2부 예배 헌금	정구원 집사	방성자 집사
오후 예배 기도		김은희 권사
주 방 봉 사	마리아회	드보라회

매일 Q.T.

진리에 순종할 때
참 자유를 누립니다

날짜 : 10월 28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본문	갈라디아서 5:1~12
말씀요약	바울은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할례받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묵상질문 1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5:1~6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란 어떤 자유인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내가 시도할 것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진리에 대한 순종 5:7~12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 강경하게 대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룩과 같이 퍼져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내가 분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갈라디아서 5장 6절 믿음은 사랑의 시작이며,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의 그릇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은 믿음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 노력과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하찮게 여기는 것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죄의 굴레에서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제 믿음이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확인되게 드러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

찬양과 기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새 288)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한 지역에 완전히 상반되게 운영하는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A초등학교는 규율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규율을 어기면 벌점을 부과했고, 학생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B초등학교는 대화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가졌고, 교사는 학생의 형편을 살피며 적절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B초등학교에도 규정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규정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교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학년 초기, A초등학교에는 잡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규율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커졌고 급기야 전학을 가겠다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B초등학교는 학년 초기에는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서서히 안정감을 찾더니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이 점점 늘었습니다. 흔히 강력한 규율이 완전한 변화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기반한 가르침이 아닌 규율만 강조하는 가르침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만 강조한다면, 당장에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성도가 많아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남는 것은 실패감과 공허함뿐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 신앙생활은 율법의 행위와 사랑의 관계 중 무엇에 비중을 두는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나누기	갈라디아서 2:11~21
묵상포인트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회의(행 15장)에서 결정했듯이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행위로 구원의 확신과 심적 평안을 얻으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의로운 사람임을 내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갑니다.
관찰과묵상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게바)와 바나바 등은 어떻게 했나요?(11~13절)
적용하기	내게 두려움을 주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현혹하는 것과 두려움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겠다고 자기 의를 쌓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하나님만 바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짜 : 11월 1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본문	시편 62:1~12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만 바라면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적이 그를 죽이려고 공격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는 백성에게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만 바라라 62:1~7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명령했나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나는 무엇을 붙드나요?
묵상질문 2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62:8~12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62편 1절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움직일 때가 있고, 가만히 하나님 은혜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 뒤에 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에 흔들림 없는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과 권력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게 하소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할 때 참 소망 얻게 됨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매일 Q.T.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	날짜 : 10월 29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183장 빈 들에 마른 풀같이
본문	갈라디아서 5:13~26
말씀요약	바울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고 행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사랑은 율법의 완성 5:13~18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요? 내가 지나친 경쟁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육체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 5:19~26 '육체의 일(행위)'과 '성령의 열매' 목록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내가 버릴 육체의 일은 무엇이며, 내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갈리디아서 5장 22~23절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에 해당하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그분 백성의 삶에 맺게 하시는 열매의 아홉 가지 특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보면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랑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길 원하셨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상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많고, 경쟁이 자연스러운 이 세상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육체의 소욕은 희미해지고 성령의 열매는 풍성히 맺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매일 Q.T.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법	날짜 : 10월 30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본문	갈라디아서 6:1~10
말씀요약	바울은 형제의 범죄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신도 시험받지 않도록 살피라고 합니다. 서로 짐을 져 주님의 법을 이루고, 각각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둘 것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짐을 서로 지라 6:1~5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성취되나요?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당한 지체를 위해 내가 사랑으로 함께 져야 하는 짐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심은 대로 거두리라 6:6~10 바울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정이나 공동체를 위해 내가 계속 이어 갈 선한 행실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갈리디아서 6장 6절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뜻하고, '함께하라'는 말은 공유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령한 것을 공유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목회자를 잘 섬기고 대접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성도들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공동체에는 평안과 생명이 넘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이 버겁고 소용없어 보여도 사랑의 법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의 짐을 함께 지고, 선행으로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게 하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제 것을 나누게 하소서.

매일 Q.T.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날짜 : 10월 31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본문	갈라디아서 6:11~18
말씀요약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는 사람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고 육체로 자랑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흔적을 지닌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질문 1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 6:11~14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려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삽자가보다 내가 더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6:15~18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절묵상	갈리디아서 6장 14절 예수님을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빌 3:8). 세상은 물질의 필요성을 극대화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으로 인한 자족성을 극대화하십니다. 무엇이든 더 얻으려는 세상에서 성도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매일을 삽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 평생의 유일하고 변함없는 자랑이 주님의 십자가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제 마음과 시선과 삶을 세우게 하소서. 세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에 몰두하지 않고, 제게 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